

광야의 디딤돌

서 대현

유난히도 무더웠던 어느 여름날, 그날도 나는 업무처리에 여념이 없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을 소개하자면 각종 고소, 고발 및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업무량이 워낙 많고 많은 민원을 대하다 보니 조직에서도 손꼽히는 기피 부서로 분류되는 곳이다. 그런 까닭으로 전입자는 없는데 전출자는 많다보니 부서의 평균 재직 일수가 그리 길지가 않은 곳이다. 이렇게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업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살이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등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 2년 동안 곳곳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실 어떤 부서에서 2년을 근무했다는 것은 그리 오래 근무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 부서는 전출자가 많다보니 2년째 근무를 해 온 나는 가장 '고참'에 속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고난도의 사건을 배당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나는 80억대의 고발 사건을 맡아서 처리를 하게 되었다. 나의 업무가 고소,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보니 많은 민원을 접하게 되고, 당사자 등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 사건은 금액 자체가 크고, 대상 업체가 관내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해 온 터라 유난히 이곳저곳에서 전화가 많이 왔다. 그럴 때마다 늘 그랬듯이 '사건은 원칙대로 진행되니 걱정 말라.'는 식의 형식적인 말투로 응대하곤 했다. 이후 고발인 조사 등 사건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건의 난이도 때문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사건을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웠다. 전화의 주요 내용은 피고발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건을 많이 처리하다보면 '사건이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수사관의 역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을 빗자루로 열심히 쓸어서 좀 더 잘 보이도록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위 부서에서 이를 보면 단박에 알게 된다.

결국 이 사건은 처음부터 피고발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되게끔 되어 있지 않으면 피고발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나는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소신껏 사건에 임했고, 소속 팀장님도 주변에 개의치 말고 소신껏 진행하라고 해주셔서 마음 편하게 사건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휴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다. 발신자를 확인해보니 불과 얼마 전까지 함께 근무했던 상사였다. 그런데 그 분은 나와는 직급 상 큰 차이가 있는, 기관장급 이상의 고위급 공무원이었다. 그래서 나와는 대면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재직 당시 나를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내가 늘 고마워하고 있는 분이였다. 일단 그 분과 내가 직급 차도 많이 나고 하니, 순간 나는 그 분께서 전화를 잘못 거신 것으로 알고 받지 않았다. 그런데 1시간 뒤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다소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그분은 내 안부를 물으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얼마 전 퇴직을 해서 지금은 쉬고 있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단순한 안부 전화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고 5분 정도 통화를 더 이어간 뒤 전화를 끊으셨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혼란스럽긴 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의 확장해석은 하지 않았다.

다시 사건은 진행되었으며, 피고발인 조사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후 또 그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사건과 관련하여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다. 전화를 끊고 나서 또 다시 혼란이 왔지만 그 분은 재직 당시 누구보다도 '청렴한 공직상'을 강조하셨고, 직원들 보호에 애쓰셨던 분이었으며 나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단순 궁금증 때문에 연락하셨을 것이다.' 이외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분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왔다. '만나고 싶다. 점심이나 먹으면서 얘기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그 분이 나와의 만남을 원하는

것은 필히 사건과 관계가 있고, 사건과 관련하여 한 당사자에게 유리한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사건 진행 중에는 사건 관련자를 만나면 안 되는 지라, 나는 그 분을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때문에 문자에 대해서도 따로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그 분한테서 전화가 왔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니 전화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분은 나에게 며칠 후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다. 마음만큼은, 그 분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싶었으나 그 분은 얼마 전까지 나의 소속 직속상관이었고, 직원들에게도 많은 호의를 베풀었으며 개인적으로도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분이라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뒤에 모처에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일단 약속을 했으니 나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친한 지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그랬더니 다들 그냥 부담 없이 가서 얘기나 들어주고 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조언처럼 '그냥 얘기나 듣고 얼른 돌아오자'라는 마음으로 약속장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약속 당일이 되니 가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 분에게 전화를 했고 "일 때문에 바빠서 식사를 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분은 나에게 "그래도 점심은 먹잖아."라고 하면서 식사를 하자고 했다. 내가 이런 저런 변명으로 거절의 뜻을 밝혔지만 그때마다 그 분은 "그래도 점심은 먹어야 되잖아."라고 하면서 식사를 하자고 했다.

결국 나는 식사자리에 나갔고 같이 점심을 먹게 되었다. 많은 걱정을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분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저런 덕담을 해 주셨다. 덕담의 주제는 '청렴'이었다. 이렇게 식사를 마쳤고 나는 그 분이 계산을 하기 전 재빨리 계산을 했다. 그랬더니 그 분은 나한테 "왜 네가 계산을 해."라고 다소 화를 내시면서 잠시 차에 타라고 했다.

차에 타고 나서야 그 분은 사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나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너무 당혹스럽고 놀라서 숨을 제대로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그 분은 나를 회유하기 시작했다.

유혹은 논리적이라고 했던가. 그 분은 나에게 성공논리와 뇌물을 접목시켜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 너는 고위직 공무원이 되고 싶지 않느냐? 고위직 공무원이 되려면 이 돈을 받아야 한다.”라는 성공논리를 내세우며 나에게 돈을 주려고 했다. 그럼에도 내가 단호히 거절하자 그 분은 전략을 변경해서 나에게 직속상관이었던 점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강압적으로 돈을 쥐어주려고 했다. 나는 그 분에게 몇 번이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 그러면서 한참 실랑이를 벌였는데, 5분쯤 지났을까. 그 분은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내 거절을 받아들였다. 그래도 그 분은 내 직속상관이었고, 나름대로 내 멘토였기 때문에 그 분이 귀가하시기 전까지 깎듯하게 예우하였다.

그 이후로도 나는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전화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큰 산을 넘은 나로서는 더 이상 이런 전화가 신경 쓰일 리 없었고, 사건을 원칙대로 진행하여 사건이 가야 할 길로 잘 안내해 주었다.

사건이 종료된 이후 나는 ‘왜 그 분이 내 사건과 관련해서 나에게 돈을 주려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내 생각에는 사건 관계자가 나에게 직접 돈을 주면 받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 없는 루트로 돈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다. 나와 그 분의 관계까지도 치밀하게 파악한 그들의 계획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이 일로 인해 나는 부패의 유혹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욱 강력하고, 계속 진화한다는 것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강력한 부패의 유혹에 대하여 승리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나는 그 분의 호의를 거절했으니 그 분의 이론에 의하면 고위직에 진출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광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사건이 그 디딤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힘든 상황에서도 곳곳이 내 소신을 지킨 자신에게 격려를 보내며 이 글을 마친다.